

# KIA, 부상 속출에 수비 실수 연발 ... 3연승 뒤 3연패



### 나지완·류지혁·이창진 엔트리 빠지고 최형우 망막 이상에이스 내고 선취점 빼고도 KT에 잇따라 무기력한 패배

KIA 타이거즈가 공수에서 약팀의 모습을 보이며 3연승 뒤 3연패에 빠졌다. KIA가 2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즌 3차전에서 2-9 역전패를 당했다. 지난 30일 1차전에 3-15로 크게 졌던 KIA는 '에이스' 브룩스가 나선 1일에는 0-3 영봉패를 기록했었다. 그리고 시리즈 마지막날 경기에서도 역전패를 기록, 3연패에 빠졌다. 한화 이글스와의 연장 11회 승부가 펼쳐졌던 지난 29일 밀어내기 볼넷으로 졸전 끝 어렵게 스윙을

완성했던 KIA는 KT에 연달아 3경기를 내주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스윙패 저지를 목표로 한 이날 경기, 선취점은 KIA의 차지였다. 2회초 1사에서 김태진의 안타가 나왔고 박찬호가 우중간 2루타를 터트리면서 1타점을 만들었다. 앞서 데스파이네가 김민식의 타구에 맞아 흔들리는 상황이었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 기선 제압에 실패했다. 리드도 오래가지 못했다. 선발 임기영이 3회말 선두타자 심우준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조용호의 희생번트로 1사 2루, 배정대의 안타가 나오면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볼넷으로 시작한 4회말 임기영이 1사에서 다시 한번 볼넷을 내줬다. 이어 신병기의 안타성 타구를 박찬호가 낚아채는 데 성공했지만 2루수 김선빈이 포구를 하지 못했다. 이 타구는 내안타로 기록했고 베이스가 가득 찼다. 그리고 심우준의 희생플라이와 함께 KT가 역전에 성공했다. 조용호의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점수는 1-3이 됐다. 3-4-5회 모두 삼자범퇴로 물러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KIA는 6회 KT 타선에 못매를 맞았다. 선발 임기영이 6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선두타자 박경수를 3루 땅볼로 처리했다. 하지만 장성우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임기영의 등판이 마무리됐다. 김현수가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나왔지만, 연속 볼넷으로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이어 김현수가 조용호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았다. 배정대와외의 승부에서는 중견수 플라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았지만 중견수 김호영이 방향을 바꿔 공을 쫓다가 넘어지면서 1타점 2루타가 만들어졌다. 강백호의 타구도 좌익수 박정우의 키를 넘기면서 연속 2루타. 점수는 1-8까지 벌어졌다. KIA는 박진태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연속 안타를 내주면서 실점이 올라갔다. 6회에만 11명의 타자를 상대한 KIA는 6실점을 하며 승기를 내줬다. 7회초 1사에서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김호영이 최원준의 안타로 홈에 들어왔지만 이게 KIA의 마지막 득점이 됐다.

8회 2사에서 김민식, 김태진, 박찬호의 3연속 안타가 나왔지만, 만루까지만 채우고 득점에는 실패하면서 2-9 대패를 기록했다. 나지완, 류지혁이 각각 2루타와 허벅지 통증으로 연달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에서 이창진도 흉주 염좌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여기에 최형우까지 중심장악성 맥락망막병증으로 망막 이상 증세를 호소하면서 KIA는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젊은 야수층의 전력 이탈 속 수비에서도 실수가 이어지면서 KIA는 '에이스'를 내고도 3연패를 당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브룩스는 1일 경기에서 6이닝 1피안타 9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패전투수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양현종, 선발 기회 잡나

### 보스턴전 4.1이닝 무실점 ... 미네소타전 등판할 듯

원소 투수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메이저리그 두 번째 등판에서 더욱 강렬한 투구로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다. 양현종은 지난 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경기에 1-6으로 끌려가던 3회에 선발 투수 아리하라 고헤이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상대로 한 바리그 데뷔전 이래 나흘 만에 등판한 양현종은 4.1이닝 동안 삼진 4개를 곁들이며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최고 구속 시속 148km의 속구와 체인지업, 슬라이더 3가지 구종으로 보스턴 강타선에 맞서 안타와 볼넷을 1개씩만 내주는 완벽에 가까운 투구로 평균자책점을 4.15에서 2.08로 낮췄다. 보스턴을 완벽 봉쇄한 양현종의 호투에도 텍사스 타선은 한 점도 추가하지 못해 1-6으로 졌다. 양현종은 투구 수 55개로 3회도 못 넘긴 아리하라보다 적은 공으로 더 많은 이닝을 버텨 효율성에서 압도했다. 아리하라는 홈런을 4개나 맞았다. 특히 5회를 빼고 4회, 6~7회 3이닝을 삼자범퇴로 끝내 보스턴에 더 달아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양현종은 7회 두 번째로 만난 버두고를 내야 뜬 공, 마르티네스와 보하르츠를 연속 삼진으로 잡고 포효했다. 마르티네스는 몸쪽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에, 보하르츠는 몸쪽 체인지업에 헛바람을 갈랐다. 호투한 양현종은 4일(한국시간)부터 7일까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

리는 메이저리그(MLB) 미네소타 트윈스와 원정 4연전에서 첫 선발 등판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선발 등판 후보 1순위는 양현종이다. 우드워드 감독은 "(6선발 체제를) 되도록 빨리 시작할 것"이라며 "오늘 혹은 내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현종도 등판 일정을 알아야 한다"며 "곧 결정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미국 델러스 지역지인 더 델러스 모닝 뉴스는 "텍사스가 임시 선발 카드를 쓴다면 그 자리는 양현종이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현종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선발 투수로 활약했으며, 최근 두 차례 볼펜 등판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양현종은 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 경기를 앞두고 화상 인터뷰에서 선발 등판을 앞둔 소감을 묻는 말에 "기회가 온다면 좋겠지만, 내 임무는 팀이 힘들 때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등판 경기에선 코치진이 주문한 이닝을 채워 만족스러웠는데, 앞으로도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현종은 텍사스와 스폰서 계약(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 연봉 조건이 다른 계약)을 하고 바리그의 문을 두드렸다. 개막전 로스터에 들지 못한 양현종은 원정 경기에 동행하는 예비 명단인 '택시 스쿼드'(Taxi squad)로만 세 차례 방문지로 떠났다. 그러다가 4월 27일 마침내 바리그로 승격해 그날 에인절스를 상대로 바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연합뉴스

## 울산의 벽은 높았다...광주FC 0-2 완패

### K리그 1, 13개 슈팅에 무득점 K리그 2 전남, 안양에 '덜미'

광주가 울산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남의 4연승 도전은 안양에 막혔다. 광주FC가 지난 1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울산현대와 K리그1 2021 13라운드 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초반부터 광주가 울산의 맹공에 시달리면서 수문장 윤보상이 가장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전반 20분 울산 김태환이 우측에서 길게 울린 공이 문전에 있던 힌터제어의 앞으로 떨어졌다. 알렉스가 앞을 막아봤지만 힌터제어의 오른발 맞은 공이 윤보상을 지나 광주의 골대를 갈랐다. 전반 추가 시간 엄지성이 회심의 오른발 슈팅을 날려봤지만 울산 골키퍼 조현우의 품에 안기며 전반전이 0-1로 마무리 됐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엄지성을 빼고 송승민을 투입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후반 6분에는 김원식을 대신해 김봉진을 투입하며 변화를 줬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윤보상이 울산의 공세를 잘 막았지만, 후반 10

분 광주의 골대가 다시 열렸다. 김태환의 패스를 받은 바코가 광주 수비진을 뚫고 왼발로 골망을 흔들었다. 울산은 이날 17개의 슈팅 가운데 11개를 유효슈팅으로 만들었고, 이중 2개는 골대 안으로 넣었다. 광주가 만회골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지만 펠리페의 세밀함이 떨어졌다. 몇 차례 슈팅 기회를 살리지 못한 펠리페가 후반 35분 이진기의 크로스를 받아 헤딩 찬스를 맞았지만 공이 높게 뛴다. 후반 17분 프리킥 상황에서 날린 헤이스의 슈팅도 울산 골키퍼 조현우에게 막히면서 광주는 13개의 슈팅(유효슈팅 7개)에도 득점 없이 경기를 끝냈다. 광주 김호영 감독은 "울산에 기술 좋은 미드필더가 많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해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려고 했다. 또 측면을 통해 경기를 풀어갈 거라 예상했는데 측면에서부터 시작된 이른 실점으로 전반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내렸다"며 "후반엔 위험을 감수하고 라인을 올렸던 게 추가실점으로 이어졌고 문전에서 결정력이 부족했다. 울산이 더 좋은 경기를 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안양에서 4연승을 노렸던 전남드래곤즈도 패배

를 기록했다. 전남은 지난 1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진행된 K리그2 2021 9라운드 FC안양과의 경기에서 0-1로 지면서 연승행진을 마감했다. 2위 전남, 3위 안양 역시 '4연승'을 놓고 벌였던 승부. 전남 4분 전남 '킵터' 이종호가 발로델리의 크로스를 받아 헤더를 시도했지만 아쉽게 골대를 비켜났다. 이후에도 전남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날손주니어를 중심으로 한 상대 수비진에 막혔다. 전반에 이어 후반에도 두 팀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면서 골사냥에 나섰다. 후반 중반 이후에는 전남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 같았지만 페널티킥에서 승부가 갈렸다. 전남 진영에서 안양 홍창범의 슈팅이 발로델리에 막혔다. 이어 두 선수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로델리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안양에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키커로 나선 조나단이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면서 '0'의 균형을 깨졌다. 이후 득점에 실패한 전남은 안양의 4연승을 지켜보아야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화정초 수완센트럴병원장배 초등 야구 우승



### 2개 대회 연속 우승

화정초가 최근 끝난 제8회 수완센트럴병원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춘계야구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이다. <사진> 본량구장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광주 지역 7개 팀이 참가해 우승을 다했다. 부전승으로 대회를 시작한 화정초는 둘째 날 대성초와의 경기에서 11-3으로 승리한 뒤, 서석초와의 경기에서 5-3으로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화정초는 앞서 열린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에

서 우승을 차지, 천안에서 열리는 화정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광주대표로도 선정됐다. <시상 내역> ▲우승: 화정초 ▲준우승: 서석초 ▲최우수선수상: 복현우(화정초) ▲우수투수상: 박시인(화정초) ▲타격상: 김정민(0.667·3타수 2안타·화정초) ▲최다도루상: 오유준(2개·서석초) ▲최다타점상: 이준영(9타점·화정초) ▲감독상: 김민혁(서석초) ▲미기상: 김재원(서석초) ▲감독상: 유종열(화정초 감독) ▲지도상: 장경희(화정초 교장) /김여울 기자 wool@